

■ 2017년도 창작뮤지컬육성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평

창작뮤지컬 분야

- 일정 및 장소 : 4.19(수)~4.21(금), 창의예술인력센터 실험무대 및 창조관
- 심의위원(가나다순) : 구소영, 김만식, 김재성, 유혜정, 정수연

뮤지컬은 시장의 검증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장르이지만, 시장의 획일화는 오히려 장르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창작의 의욕보다 시장의 논리가 우선될 때 작품의 숫자는,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작품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확보되지 못한 시장은 튼튼할 수 없다. 새로운 작품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의 신작 지원은 이 새로움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참신함과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지닌 창작뮤지컬을 발굴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 장르의 문법에 충실하면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지닌 작품을 격려함으로써 창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공공성은 시장 논리 이전에 작품 자체의 의도와 완성도에 주목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공성 위에서만 다양성은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올해의 신작 선정의 기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익숙한 문법을 재현하는 작품보다는 주제와 형식에서 자기만의 색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을 우선순위로 배치했다. 그 결과 기존 작품과 변별점을 가지면서도 초연되는 창작뮤지컬로서 완성도가 기대되는 작품으로 총 4편의 작품(대극장 2편, 소극장 2편)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대극장 분야

<스페셜 5>는 창작뮤지컬 시장에서는 드문 B급 뮤지컬을 표방하는 작품이다. 인물과 사건을 설정하는 만화적 상상력이 기발하고, 팝아트를 연상시키는 무대의 시각적 구현도 기대되는 지점이다. 다만 가끔씩 진지함이 가벼움을 방해할 때가 있다. 발랄한 극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은 이 작품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다.

<카라마조프>는 원작을 활용한 창작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긴 원작을 압축하기 위한 재판과 추리의 극적 설정이 기능적이고, 캐릭터의 입체성과 서사의 흐름, 주제의식의 선명함이 눈에 띈다. 뮤지컬로서의 미덕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음악은 좀 더 다양한 분위기로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

○ 소극장 분야

<줄리 앤 폴>은 소재의 참신함과 서사의 촘촘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뮤지컬에서 가장 흔한 로맨스의 전형이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상상력과 극작과 음악의 짜임새가 훌륭하다. 소극장 무대에 적절한 시각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서사의 집중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비현실적 캐릭터에 대한 형상화의 방식은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그림일기>는 ‘버려진 아이들’을 향한 진지한 주제의식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동화적 아름다움과 현실적 냉혹함을 그려내는 서사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소극장 무대에서 활용될 영상의 기능도 기대되는 지점이다. 잘 다듬어진 결말을 통해 주제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면 가족극으로 확장될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잘 준비되어 좋은 공연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